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에 대한 재해석*

조경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Reinterpreting Frederick Law Olmsted's Idea of Urban Parks

Zoh, Kyung-Jin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Urban parks are indispensable elements of contemporary cities. However,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contemporary cities is currently changing. There are prevalent discourses that Olmstedian parks are no longer relevant to our new societies and cultures. New kinds of parks have emerged with different forms and functions. In order to propose a new paradigm for parks in the 21st century, we need to look back to the origin of modern parks, which is to say, Olmstedian parks.

This paper aims to trace the background of park movements in the 19th century America and to identify and describe Olmsted's idea of urban parks. In addition, the paper will clarify the limitations and reinterpret the meaning of Olmsted's idea of urban parks.

One idea behind the development of urban parks was to mitigate urban problems such as public health, alcoholism, violence and class conflicts in 19th century industrial cities. The aim of urban parks was partially achieved at that time. However, those parks did not serve the use of diverse classes. Olmstedian parks were designed for passive and civilized recreation, and lower classes were more attracted by active theme parks and areas such as Coney Island and John Wood.

The strengths of Olmsted's idea of urban parks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designing parks goes beyond shaping physical lands to embrace social reforms. This means that park designers should have a critical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culture. Also, landscape designers should have a bold vision for the future. Without such a vision and social agenda, landscape architects cannot postulate alternative possibilities through engaging in new practices. Second, Olmsted successfully adapted British landscape aesthetic ideas such as the picturesque,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 into an American context. Finally, his vision and idea of urban parks show

*: 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us that landscape architecture is not just technical work, but that it can create a locus to engage a new cultural praxis by inventing cultural products - parks.

Key Words : Frederick Law Olmsted, Urban Park, Central Park, American Park, 19th Century Park

1. 서론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태동한 도시공원은 이제 전 세계의 도시에 필요불가결한 도시시설이자 도시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초기의 도시공원과 현대의 도시공원은 그 내용과 기능, 외관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원 성격변화의 원인은 19세기 산업도시와 현대 대도시의 질적인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인 공공기관이 중심에 있고, 배후에 전원적인 교외지역이 펼쳐지는 전통적인 도시는 경계가 확장되면서 다핵화되고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지역적 대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다핵화 지역의 중심은 교통망, 전자통신,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가 연계되면서, 인프라스트럭처나 물자의 흐름이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계획과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와 농촌 경계의 주변 대지가 중요한 지점이 되고, 이동과 접근이 증대되면서, 도시는 형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해된다. 자연히 광장이나 공원 같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유형보다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의 흐름, 모호한 공간 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Wall, 1999). 이외에도 자동차의 대중화로 도시민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은 교외지역으로 확산되고, 고급실내형 헬스클럽의 확산, 소비와 휴식, 오락을 일체화시킨 대형쇼핑몰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녹색도시공원은 그 지위와 위상이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19세기 목가적 공원은 더 이상 일상적인 삶 속에 역동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폐물이라고 평가하는 주장도 공원에 관한 담론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배정환, 2001). 20세기 후반에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공원은 19세기 전원적 도시공원을 지양하고 새로운 도시공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조성된 프랑스 파리의 라빌레트공원은 그러한 예이다.

라빌레트 현상공모를 위한 기획안에서도 이 공원이 풍경식 공원 혹은 고전적인 공원에서 탈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당선되어 시공된 베르라르 추미의 공원디자인은 도시와 자연, 문화와 자연이 단절되지 않고, 교호하는 새로운 공원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조경진, 1998). 또 하나의 21세기 새로운 도시공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캐나다 다운스뷰 파크의 현상설계에서 램폴하스의 당선안은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파기하고, 도시가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안도 나무 군락과 같은 매트릭스로 마치 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이 공원의 골격을 이루는 있다(배정환, 2002). 이러한 새로운 도시공원들은 19세기 목가적 공원과 사뭇 다른 공원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는 아방가르드적인 공원의 예이고, 일반적인 공원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도시공원의 범용적 모델로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라빌레트 공원의 대중적인 평가는 회의적이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다운스뷰파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아 개념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도시공원의 모델을 찾는 노력의 기반은 19세기 전원적 공원을 태동하게 한 철학과 사상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 공원문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프레데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센트랄파크이다. 과거의 공원이 올스테드 공원의 이미지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시대에도 몇몇 공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원의 이미지를 발견하기 힘든 실정이다(Balmori, 1993).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올스테드의 공원은 전원적, 목가적인 풍경으로 도시공원이 떠오른다. 현재에는 하나의 양식으로 스타일로서 남아있는 올스테드의 공원의 뒤에 깔려있는 생각은 깊이 있는 이해와 탐구가 미진한 채 남아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 음스테드 공원관을 고찰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음스테드 조경사상의 핵심과 기저에 담고있는 이상은 무엇일까? 이러한 이상은 공원디자인을 통하여 얼마나 달성되었고, 당대와 현재 비판적 시각은 무엇일까? 음스테드 공원의 공과는 무엇이고, 현재적 가치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공원의 본류가 되는 음스테드 공원관의 정확하고 다각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이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적합한 공원의 모색에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음스테드의 센트랄파크는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인 한국의 공원의 설계에도 끊임 없이 벤치마킹되는 선례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도 뉴욕의 센트랄파크와 같은 공원이 들어선다는 식의 신문기사는 일반적인 캐치프레이즈로 이용되는 문구이다. 그만큼 센트랄파크는 도시공원의 전형으로서 깊게 각인되어 있다. 부산시에도 100만평의 공원을 만드는 일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35만평의 뚝섬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여전히 음미해볼 만한 음스테드 공원의 가치와 한계를 규명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음스테드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다. 음스테드는 조경가뿐만 아니라 사상가, 사회운동가, 문필가로서 다면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역사학계, 문화계, 디자인계에서는 다층적인 시각으로 음스테드를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음스테드가 남긴 글을 모아놓고 모노그래프는 무척 많지만 전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연구로는 서튼(Sutton, 1979)과 차알스 비버리지(Beveridge *et al.*, 1997)의 것이 대표적이다. 음스테드의 일대기를 다룬 연구로는 워틀드 리젠스키(Rybczynski, 1999)와 멜빈 칼퍼스(Kalfus, 199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리젠스키는 음스테드의 다양한 활동의 축적으로 풍부하게 재구성하고 있고, 칼퍼스의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 결핍을 공공적 사회봉사로 어떻게 승화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음스테드의 작품과 그 특징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연구로는 비버리지와 로월리(Beveridge *et al.*, 1995)가 있고, 차트 제브스키(Zaitzevsky, 1982)의 연구는 보스턴공원체계를

를 구축하면서 음스테드 사무실에서 계획과 설계를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상세히 추적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학계에는 수십 종의 서적과 많은 논문이 있다. 국내에 음스테드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최정민(1993)은 음스테드 양식이 한국 현대조경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고, 양호정(2000)은 음스테드 조경사상의 형성배경에서 미학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그러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음스테드의 생애와 활동을 사료중심으로 다루고 있기에, 실천적인 공원디자인에 깊게 관련되어 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역사학자의 시각이나 문화사가의 시각을 지양하고, 조경설계가로서 음스테드의 공원관을 조망하고자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음스테드 공원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힘과 생명력의 근거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음스테드 조경관 혹은 공원관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설계와 관련된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에 도시공원의 비전을 찾는 단초를 찾고자 한다.

II. 음스테드 도시공원 사상의 형성배경

근대적인 의미에서 공원은 영국에서 태동되었다.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영국의 왕실정원은 일반 대중에게 한정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이드파크(Hyde Park)는 1630년대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세인트 제임스파크(St. James Park)와 그린파크(Green Park)는 차알스 2세때부터 공공에 개방되었다. 계획된 공원의 시초로는 1811년부터 1826년사이 존 나쉬(John Nash)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된 리젠트파크(Regent's Park)이다. 왕의 재산인 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인근의 주거지 계획과 연계하여 인근의 토지의 지가를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리젠트공원은 공공공원으로 계획되었지만 1941년 비로소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개방되었다. 공원조성은 수 차례의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33년 '공공가로의 위임위원회 리포트'에서 영국의 주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미래의 활용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였다. 이 리포트에서는 공원의 조성 목적은 레크

레이션 목적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물리적 필요성과 노동자계급의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다(Conway, 1991).

옴스테드가 공원에 대한 영감을 받는 것도 영국을 여행하면서 본 리버풀의 버킨헤드파크(Birkenhead Park)였다. 1932년 '버킨헤드 개선 위원회'는 공공의 세금으로 공원을 수용하여 조성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조셉 팩스톤(Joseph Paxton)이 설계하여 완공된 후 1847년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최초로 공공비용으로 조성한 이 공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주위의 토지지가 상승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세수가 증대하여 차후 공원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Conway, 1991). 옴스테드는 버킨헤드파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나는 민주적인 미국에서는 시민을 위한 정원(People's Garden)과 견줄만한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Beveridge *et al.*, 1997: 61). 옴스테드가 버킨헤드파크에 매료된 이유는 여러 계층에 의해 공원이 잘 이용되는 점이었다. 이는 버킨헤드파크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요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공 공원을 위한 설계요소인 산책로, 말의 이동을 위한 도로, 광활한 평야와 숲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유흥시설인 아이스크림스탠드, 비어가든, 앉아서 쉬고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연인들이 침거할 수 있는 공간, 밴드음악공연, 야생동물, 보트, 카누, 화훼류 등을 구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Warner, 1993).

미국에서도 옴스테드의 기행문에서 공원의 필요성이 촉발되었지만, 이전부터 공원의 필요성을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뉴욕의 경우 센트럴파크를 만드는 요청은 윌리엄 콜렌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 등 대도시의 귀족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미국 사회의 주도적인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물질주의와 이상주의의 긴장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코울리지, 워즈워드, 카알라일, 러스킨 등 영국낭만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현실변혁의 방식은 당대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대도시 귀족의 전통은 동시대에 봉사하는 의무와 인간성을 고양하게끔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방식의

하나로 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Kalfus, 1990).

옴스테드의 공원에 대한 생각은 19세기 당시 소로우(Thoreau)나 에머슨(Emerson)등의 초월주의자들의 자연관에 영향받았다. 에머슨의 자연은 추상적이고, 일 반적인데 반해, 소로우의 자연은 구체적이었다. 에머슨에게서 자연은 부과한 추상적 원리가 체현된 초월적 관 조자인 반면, 소로우의 자연은 그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있는 현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Oelschlaeger, 1991). 이러한 초월주의자들의 생각은 도시는 악이고, 자연은 지고의 존재(Supreme being)로 선을 상징하였다. 공원은 악의 도시에 선의 자연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간회복의 하나의 방안이었다. 윌트만(Whitman)은 오디푸스적 열망의 위대한 도시는 정신적 요구를 충족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거대한 도시는 물리적 성격으로 인해 심리적 공포, 경쟁 정신의 불안이 내재한다고 비판하였다(Kalfus, 1990). 영적인 신상체험의 회복을 부르짖는 초월주의는 인간과 세계 내의 신의 현존을 강조함으로써 범신론적이고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었다(에머슨, 1998). 이러한 의미에서 공원은 신의 내재성을 확인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초월주의자들은 넓은 녹지공간의 가치를 인식하여, 공원은 도시의 허파라고 역설하게 되었다.

옴스테드가 도시공원에 담은 또 하나의 이상은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건강한 레크레이션 장소의 제공이었다. 당시의 도시사회는 음주와 매춘으로 가족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었다. 건전한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 문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공원조성의 의도에 깔려 있었다. 자연히 공원의 이용도 초원예의 피크닉과 수동적인 휴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공원에서 일정의 행동, 즉 술을 먹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과 도박은 금기시되었다. 결국 공원에서는 편안히 휴식함으로써 도시생활을 견디게끔 하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우뇌의 감각을 증진시키게 하였다. 즉 공간인식, 볼륨감, 근육운동 경험, 물, 청각, 음악 등이 그러한 감각 증진의 방법이 되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계층이 융합하는 장소이지만, 상류계층의 매너와 생활방식을 노동자계층이 보고 배우게끔 하는 의도가 존재하였다. 옴스테드는 공원은 일종의 사회통제의 메카니즘

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결국 공원은 도시를 살리고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어기제였다(Cranz, 1978)

도시에 공원을 필요로 하게 된 상황은 무엇보다도 19세기 산업도시의 심각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는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등에서 공공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말까지 이어졌다. 당시의 폭발적인 도시인구 집중에 의해 삶의 거주조건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뉴욕의 풍경을 묘사한 글에서 도시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뉴욕의 빈민대주택지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둡고 환기가 안 되는 방에 밀집해 있다. 그 중 상당수의 방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은 질병, 가난, 타락, 범죄의 중심이며 이곳의 아이들은 강도, 주정뱅이, 매춘부로 자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외바르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DeForest and Veiller, 1903; Hall, 1996: 재인용) 19세기 중반이후 도시문제는 공원의 발명을 요청하게 되었다. 도시의 확산으로 교외로 여행하기가 힘들어져서, 레저와 명상과 일은 양립되기 힘든 실정이 되었다. 당시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결핵과 유행병 등의 질병으로부터 공공위생의 측면에서 공원이 건강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또한 당시의 뉴욕의 도시는 폭동과 범죄, 계층 및 인종갈등의 조짐이 보였고, 이를 순화시키는 의미에서 공원의 전원적 풍경은 시민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고양하며 평온함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다. 공원에서 자연의 회복 기능은 자연경치의 명상을 통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 상태에서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옴스테드의 공원은 도시 생활에서 수동적이고, 명상적이고, 유순한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옴스테드 공원관의 형성은 한 개인의 독창적인 철학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동시대의 지성들이 사고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에 선진국으로 여겨지던 유럽문명에서 공원의 모델을 수입하였고, 이를 미국적 상황에서 요구에 부응하게 수용하였다. 절박한 현실 도시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 공원을 통한

사회개혁 의지가 발현된 것이 옴스테드의 공원이었다. 19세기 미국의 공원은 일반 대중을 교화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지키겠다는 미국지식인의 사회적 소명을 발현이었다.

III. 옴스테드 공원관의 이념과 특징

상술한 바와 같이 옴스테드는 동시대의 지성으로 시대적 정신을 대표하지만, 옴스테드의 고유한 공원철학은 무엇이고, 그의 개인적 성향과 인생여정은 공원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그의 공원미학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옴스테드가 그의 저작에서 공원의 궁극적인 가치는 ‘공유성(communitiveness)’이라 지칭하고 있다(Beveridge, 1997). 신조어인 공유성은 상업경쟁사회에서 친숙성과 심리적 위안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시생활에 주는 자기도취적 이기주의와 이상적 이타주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인간 내부의 자극적 요소로서 야생과 문명, 개인주의와 공동체적 의식의 관계적 사고는 옴스테드 도시조경의 중심 철학이다. 옴스테드의 미완의 저작 중에 ‘문명(Civilization)’에서 그는 미국사회의 본질적 성향 중에 두 가지의 기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거적 사고인 야생의 프론티어기질과 다른 하나는 문명적 사고인 문화적 기질이다. 공유성의 개념은 다른 두 차원의 야생과 문명의 사고를 중재하는 것을 공원이 지향하는 이중적 가치를 의미한다. 옴스테드의 센트랄파크는 공공 정부와 시민의 복지, 도시생활의 스트레스와 이를 이완하는 심리적 위안사이를 중재하는 이중적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에 근간을 둔 옴스테드의 공원은 “자연과 통합하려는 욕망과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모순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다(Kaufmann, 1981: 25).” 옴스테드의 공원관은 공유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초월주의자의 도시와 자연이 대립되는 이분법적 구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옴스테드의 공원은 단지 문화인 도시에 순수한 자연을 심어 놓는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도시성과 자연성을 중재하는 공원은 더 이상 순수한 자연을 재현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도시에 적절한 자연을 개입시킴으로써 도시생

활을 변모시키고 지속시키는 현실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옴스테드의 공원관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배경과 생애의 여정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옴스테드는 어릴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집을 떠나서 보딩스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결혼도 동생이 죽은 후 동생의 처와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에서 하였다. 개인적인 건강도 좋지 않아 어릴적에는 눈에 옷병이 걸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뉴욕의 센트랄파크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다쳐 평생 고생하기도 하였다. 심한 불면증은 그를 따라 다니는 고통이었고, 말년에는 5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애를 마쳤다. 옴스테드는 심리학적으로는 결손된 인간이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옴스테드는 퓨리탄의 자손으로서 커뮤니티와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강한 도덕적 책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과중한 노동, 절제된 생활, 정신적 봉사를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지성인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삶의 방식은 퓨리탄과 웨이커에 뿌리를 둔 전통이라 할 수 있다(Shi, 1985). 옴스테드도 태생적으로 퓨리탄의 가정에서 교육받았고, 시대를 함께 한 동료들이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지성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소명의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 스스로의 존재를 팔았다”고 고백하였다(Walker and Simo, 1994: 13). 그는 공공의 봉사를 위해 개인적 향유와 권리를 유보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불의와 싸우는 봉사자로 인식하였다. 결국 그의 내면의 자아와 외부에 의해 구축된 자아의 갈등이 정신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Kalfus, 1990).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공원은 그에게 결핍된 여성성의 공공적 실현이라는 해석도 일리가 있다. 그의 공원디자인의 철학은 19세기 미국도시의 경쟁적인 남성적 생활에 심리적 위안처를 가지는 여성성을 상징하게 된다. 공원에서 느끼는 위안은 두 가지의 수동적 위안으로서 즐거움과 친숙성에 있다. 전자는 사람들과 한 장소에 함께 있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상태이고, 후자는 작고 친숙한 그룹이 함께 있음으로써 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옴스테드의 공

원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레크레이션 공간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그에게서 공원의 모성애적 회귀를 뜻하는 것으로 남성적 도시 속에서 안식처를 찾는 의미를 지닌다(Kalfus, 1990). 옴스테드의 공원이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여성성의 상징이라는 관점을 확대하면, 도시민의 집합무의식에 늘 안온하고 따뜻한 모성의 품을 표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세의 정원이 성모마리아, 혹은 여성성을 상징한다는 원형적 문화비평의 관점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옴스테드 공원관의 또 다른 특징은 이념성과 실용성의 결합이다. 옴스테드는 남북전쟁전 미국낭만주의, 개인주의, 열광적 감정, 토속적인 것과 자연세계의 매료되었다. 이 낭만주의의 물결은 호든, 멜빌, 소로의 작품, 다우닝의 정원, 허드슨강과의 회화에 재현되었다. 옴스테드는 멜빌과 소로에 친숙하였지만 그들과 차별되는 점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이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구체적으로 일을 실천하였다(Fabos et al., 1968). J. S. 밀의 정치윤리 사상은 옴스테드에 영향을 끼쳤고, 그에게서 낭만주의와 실용주의는 결합되었다. 밀의 사상은 비판적 입장으로 취하면서도 물질사회에 참여하는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Kalfus, 1991). 밀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일반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권위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가 대다수의 희생으로 소수의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선택받은 엘리트는 그들의 수혜 받은 것을 환원할 책임이 있다. 누구나 타인을 위한 행동방식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밀의 사상은 엘리트로서 옴스테드의 직업관에 영향을 미쳤고,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공공적 가치가 있는 개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요세미티계곡의 보존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자연풍경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 자유로운 대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의 실현하면서 경관의 이용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였다(Spirm, 1995). 옴스테드 이전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상을 공표하고, 구체적인 작품에서 표현하고, 직업으로 제도화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옴스테드

는 행동하는 지성, 현실적 이상주의자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가 개입한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그의 생각은 반영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움스테드가 공원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미학적 범주는 무엇일까? 움스테드의 경관관은 우버데일 프라이스(Uvedale Price)와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의 픽처레스크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움스테드는 뉴턴시절에 하트포트 공공도서관에서 길핀의 '삼립경관에 관한 비평'과 프라이스의 '픽처레스크에 관한 에세이'를 읽었다. 특히 움스테드 자신도 프라이스의 책은 조경사에 가장 중요한 서적이라 회고하였으며, 그의 조경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픽처레스크 미학의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는 융합(mixture)이다. "18세기 영국의 케임스 경(Lord Kames)은 그의 저서인 '비평의 요소'에서는 혼합은 미적 만족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유사한 것 중의 구별되는 것과 구별되는 것 중의 유사성은 공히 놀라움을 유발한다. 음악적 구성과 같이 깔끔함과 웅대함, 야생적인 것과 질서 있음, 우울함과 즐거움의 혼합은 시각적인 구성을 성공적인 수준으로 이끈다(Robinson, 1991: 7)." 이렇듯 픽처레스크 미학은 단일한 미적인 아름다움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성향을 지닌다. 미적인 범주로서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그의 저서인 '숭고미와 우미에 관하여'에서 구분한 숭고미와 우미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며, 우미의 지루함과 숭고미의 공포를 중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두 가지의 다른 양상을 융합하는 픽처레스크 미학의 특징이 위에서 언급한 야생과 문명을 중재하는 도시공원의 이중적인 이념적 성격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움스테드는 픽처레스크 미학을 공원에서 재현하고자, 픽처레스크가 혼합하고자 하는 다른 미의 범주인 우미와 숭고미도 공원설계에서 가동하였다. 첫째는 우미(beautiful)로서 부드러움, 유연한 곡선, 섬세함으로 표현되고, 둘째는 숭고미(sublime)로서 위협함, 고독, 광활함으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픽처레스크(picturesque)는 이 둘을 융합하는 미의 범주로 거침, 다양함, 불규칙함, 정교함과 복잡함으로 요약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경관의 특징인 야생과 문명, 즉 숭고미와 우미의 융합을 픽처레스크라는 미학적 이상으로 표현

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프로스펙스 공원은 미국경관의 세 개 유형의 지질학적 대지형태가 초원에서는 우미를 표현하는 전원미(pastoral), 맨하탄을 바라보는 조망점에서는 숭고미, 언덕과 계곡에서는 픽처레스크의 관점에서 공간에서 표현되고 있다(Meyer, 1997). 또한 뉴욕의 센트랄파크는 픽처레스크 미학이 실현된 대표적인 공원이요, 푸른 잔디밭이 펼쳐지는 초원(Meadow)은 숭고미, 도시적 아름다움의 느껴지는 몰(Mall)은 우미, 계곡과 같이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지는 산책길(The Ramble)은 픽처레스크 미가 표현되는 공간이었다. 움스테드의 공원은 영국 정원의 미학이론을 미국적 경관에 관점에서 해석하고, 공원에서 미국의 자연과 문화경관요소를 다양한 양상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움스테드가 영국의 미학사상을 미국적 토양에서 해석하고 도입하여 그의 공원미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할 점이다.

V. 움스테드 공원관의 한계와 비판

움스테드의 공원은 그의 이상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을까? 유럽의 공원과 노동자계급의 레크레이션 장소의 제공이었고, 움스테드도 공원에서 여러 계층이 서로 교류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움스테드의 공원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층을 위한 공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잭슨(J. B. Jackson)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원의 원형을 구분했다. 하나는 유럽형으로 설계된 공원이요, 또 하나의 공원의 원형은 비어있는 땅(unstructured ground)이다. 후자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장소로 중세유럽의 교회마당, 도시경계 성곽 밖의 미개밭된 터와 강둑 등으로 토속적인 장소를 일컫는다. 반면 전자는 보다 구조화된 틀로서 공원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제어하고, 조절한다(Jackson, 1984). 센트랄파크는 디자인된 공원을 모델로 삼았기에 노동자계급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노동자계급은 센트랄파크 토요일 오후의 콘서트나 겨울철스케이팅에서 배제되었다. 문화적 취향이 맞지 않았고, 당시 스케이팅은 귀족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6일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평소에 휴식을 취할 시

간적 여유도 없었고, 집에서 먼 거리 때문에 교통편을 이용해 센트랄파크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무엇보다도 옴스테드의 생각은 노동자계급의 도덕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나치게 순진한 태도라고 비판받는다. 센트랄파크의 전원적 경관은 노동자계급이 좋아하는 매력요소인 유희정원(pleasure garden)의 성격이 부재했다(Rosenzweig *et al.*, 1992). 이러한 엘리트 취향을 이후에 뉴욕의 도시계획커미셔너였던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는 “옴스테드를 귀족적 베르사이어 조경가이고, 미국의 WASP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족계층”이라 비판했다(Jackson, 1991, 128). 뉴욕의 문화적 리더들은 공공의 질서를 위협받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위협한 계층인 노동자계층으로부터 공원이 신사적이고 시민을 위해 효과적이며 교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랐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계층은 시골 벽적이고 재미있고, 거친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짐작은 센트랄파크의 분위기는 이들을 감잡하게 하고, 숨막하게 하였다. 이들은 곧 센트랄파크에 싫증내고 뉴욕 인근에 존 우드(John Wood)나 코니아일랜드(Coney Island)에서의 여가를 더욱 즐겼다. 거기서는 자유로운 여흥과 흥미로운 탈거리, 보다 대중적인 축제가 벌어졌다. 결국 센트랄파크와 코니아일랜드는 19세기 중반의 미국의 상류사회 개혁가에 의해 개발된 도시레크레이션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센트랄파크가 사회질서, 통합, 평온함을 제공하였다면, 코니아일랜드는 대중취향의 코드를 읽고, 이를 고양하고 공공의 행동양식을 즐겁게 발현한 경우이다(Kasson, 1978).

잭슨은 옴스테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경가로서 도시설계가로서의 작품은 통상적으로 숭배되지만, 그의 사회철학은 엘리티즘, 반도시적론, 자연환경에 대한 강조 등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공원의 개념은 사회계층의 단편화, 고독한 경험과 가족적 경험의 지향, 개인과 환경의 수동적 관계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Jackson, 1991: 133).” 이러한 옴스테드의 공원 개념이 도시민이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이용계층을 명시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공원, 활동적이고 모두 사람들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공원, 개

인과 환경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호하는 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원이 현대인에게에는 필요하다.

다른 옴스테드의 공원에 대한 비판은 전원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원의 성격이다. 이는 19세기 과밀한 도시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원적인 특성인 자연의 회복적인 힘과 정서를 진정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을 재현하는 공원은 도시의 기존 조직을 보완하고, 잃어버린 전원성을 흉내내고 있다. 녹색의 섬으로서 공원은 도시생활과 분리된 채 자연과 도시의 간극을 상징하고 있다(Kaufman, 1991). 이러한 가짜 농촌 초원으로서의 공원이 오늘날 현대도시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오늘날의 공원은 보다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다양한 관계로 현대 도시적 생활과 관련 맺어야 하는 운명이다. 옴스테드식 공원은 여러 다른 가능성 중 하나의 경우를 제시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전원적 공원도 여러 유형의 하나로서 존재할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옴스테드 도시공원 의미의 재해석

옴스테드 도시공원은 150여년 전 미국 도시와 문화상황에서의 하나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다면 옴스테드 공원의 생명력은 다한 것일까?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본 옴스테드의 공원관 또는 조경사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 측면에서 옴스테드 공원의 현재적 가치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옴스테드 공원은 도시문제의 즉지적이고 임시방편적 해결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 본 전략이었다. 만일 19세기 옴스테드의 공원이 확장한 미국도시에 자연의 인프라로 구축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미국 도시들은 과밀한 부동산개발로 자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뉴욕의 센트랄파크, 보스턴과 버펄로 공원녹지체계의 구축 등의 도시의 자연의 골격을 형성함으로써 미국도시가 아직도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당시에 조성된 공원은 단지 자연으로 장식된 공간이 아닌, 자연인프라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근에 조경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두인 인프라스트럭처 랜드스케이프(landscape infrastructure)

cape)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프라 스트럭처 랜드스케이프는 경관이 단지 분절적인 장식과 치장이 아닌, 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로나 시설물처럼, 시스템의 통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옴스테드의 공원체계는 시스템적 사고를 구현하고, 생태계획적 기법이 이미 시도되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생태통로로서의 공원은 이미 옴스테드의 보스톤의 녹지체계인 에메랄드 넥크리스(Emerald Necklace)에서 환상적 녹지체계의 구축에서 실현되었고, 생태공학적인 수법은 보스톤의 펜웨이(Fens and Riverway)에서 차알스 강의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고 있고, 환경복원의 예에서 볼 수 있다(Spirm, 1995). 현대적인 생태조경의 기법이 이미 옴스테드 공원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만할 사항이다.

둘째, 옴스테드의 공원은 도시에서 하나의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관계의 설정을 통한 도시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의 공원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부분 주어진 공간이나 짜투리땅으로 조성되곤 한다. 자연히 도시공간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원이 주도적으로 도시공간의 진화를 조절해 주기보다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옴스테드의 도시공원은 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기능하였다. 센트랄파크는 단조로운 도시의 그리드를 멈추게 하였고, 경계부는 그리드와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형성되어 있다. 센트랄파크는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그리드를 더욱 읽기 쉽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고, 보스톤의 공원녹지체계는 도시골격이 연계되어 도시형성을 유도하였다. 옴스테드의 공원은 경계부에서 끝나지 않고, 디자인으로 또는 암시로서 도시에 촉각을 보내, 도시의 가로, 교통패턴, 주거지역의 패턴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tton, 1979). 이렇게 도시공간의 긴장관계의 형성, 도시공간의 형성에 암시를 제공하는 공원의 기능은 공원계획이 도시계획의 상위의 개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예술가인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은 옴스테드의 센트랄파크를 대지예술의 선구적인 모델로 해석하였다. 그는 옴스테드를 최초의 대지예술

가로 지칭하고 있다. 옴스테드의 센트랄파크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자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연적인 것은 철저하고 의도되고 구축된 자연인 것이다. 특히 초기 환경예술의 이념이 지향했듯이 센트랄파크는 도시의 버려진 곳, 산업화의 파괴된 곳, 경솔한 도시화의 그늘, 자연이 황폐화된 땅을 팔레트 삼아 예술적 장소로 변화시킨 것이다.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공원은 정신이 아닌 사물로서 이해되는데, 형식적 이상으로서 자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상태의 자연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스미슨은 공원을 변증법적 경관이라 해석하면서, 공원은 고립된 사물이 아닌, 여러 관계로 간주하였다(Smithson, 1973). 이러한 변증법적 경관으로서의 공원은 하나의 시설로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실체로서 이해하던 기존의 시각을 교정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공원의 조성으로 황폐한 자연과의 새로운 생성관계가 정립되어 진화하는 환경을 형성하게 되고, 기존의 도시와의 대립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시진화를 촉발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미슨의 해석은 옴스테드 공원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를 제시해준다. 황폐한 자연에 공원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예술공간을 형성하여 문화에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암울한 도시공간에 자연을 제공함으로써 단지 대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이 다시 생명력을 지니게 엔티테제를 구축한다. 이는 자연과 문화, 도시와 자연의 이분화된 골격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새롭게 극복된 또 하나의 상보적 실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결국 공원은 단지 자연을 도시 내에 주입하는 것이 아닌, 도시와 문화의 변형과 진화를 위한 매개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옴스테드의 공원은 현대 공원의 하나의 추세인 테마화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센트랄파크의 불링그린과 같은 장소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에 빈(void) 공간을 제공한다. 비어있는 공간은 불확정적인 여러 양태의 용도를 수용하게 된다. 일상 시에는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행사시에는 콘서트와 이벤트공간으로 이용된다. 옴스테드의 도시공원은 이렇듯 공간은 용도를 지나치게 한정하지 않고 비움의 미학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도시공간의 상업자본이 침투하면

서 테마화되는 것이 경향이다. 다양한 자극을 찾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테마화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테마화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간의 테마화는 본래의 특성 상 순간 순간의 말초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일상환경 전체가 테마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조성된 테마화된 공간의 스펙타클한 이미지는 표피화적이고 찰나적이어서, 실존적 공간체험이 주는 은근한 감동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특히 공공적인 공원은 자칫 잘못하면 테마가 강요하는 부담 때문에 자유스러운 공간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의 마당이나 서구 유럽의 광장과 같이 비어있는 공간이용 프로그램이 없는 장소가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조경진, 1986). 옴스테드 공원은 무테마화의 공간(un-themed space)으로 아직 유효하고, 변치 않은 가치를 지닌다.

VI. 결론

현대도시의 구조적 변화로 새로운 다양한 공간이 창출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실내의 스포츠센터, 휴식과 레저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공간을 가진 공동주택단지나 주상복합형 콤플렉스, 교외에 전원휴양지 등이 새로운 도시공간의 유형이다. 이러한 일상과 소비, 레저를 결합시킨 상업적이고, 민간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공간의 출현으로 도시공원의 위상은 도전 받고 있다. 갈 곳과 놀 곳이 많은 휴일의 한 때를 공원에서 지내기보다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보내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 도시생활의 양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잡하게 교외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고, 도시 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고, 편안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의 가치는 현대도시에서도 여전히 소중하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태도시, 혹은 환경친화적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의 유무와 정도는 살기 좋은 도시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공원의 의미와 역할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산업도시에서 옴스테드의 공원이 만들어질 때의 생각과 흔적을 추적해보았다. 옴스테드의 공원은 당시의 산업도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하나의 발명품이라 하겠다. 도시문화와 도시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이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을 만드는 일은 단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개혁과 변혁의 의지를 담은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물론 이러한 사회개혁의 실험이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통한 현실개조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은 아직도 본받을 만한 점이라 하겠다. 옴스테드는 유럽의 공원문화를 미국적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문화 속의 태동된 공원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경관유형을 공원에 재현함으로써 미국적 정서와 감성에 맞는 공원문화를 정착시켰다는 데,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옴스테드가 19세기 공원을 꿈꾸고 실현하면서 철저한 도시상황에 대한 현실인식 하에 대담한 이상과 비전을 추구하였고, 이를 실현하면서 유럽의 공원문화가 미국적 상황에서 변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옴스테드의 공원철학과 실천전략에서 오늘날 사는 조경가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공원을 만드는 전문분야인 조경은 하나의 기술영역으로 인식되곤 한다. 주어진 법과 제도 속에서 계획가, 설계가는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옴스테드의 경우를 비추어볼 때 조경가는 수동적인 기술자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창조자로서의 활동하였다. 옴스테드의 공원은 당대의 도시문화의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의 족적은 문화창조자로서 조경가의 역할은 동시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도시 사회 문화에 전반적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옴스테드는 센트랄파크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그의 이상을 실현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실천적인 노력 없이는 센트랄파크의 성공도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봉사정신의 이상을 바탕으로 현실에 뛰어들어 문

제를 해결하는 옴스테드의 일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을 사는 조경가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설계가들에게 던지는 옴스테드의 공원디자인이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자연을 재현하는 옴스테드 공원의 생명력은 소멸된 것일까? 과연 옴스테드 공원을 과거의 것으로 폄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 도시 내에 잃어버린 자연을 제공한다는 공원의 의미는 보다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옴스테드의 공원은 하나의 유행이나 양식이라기 보다 공원의 원형적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공원 모색은 도시 공원의 다변화, 다양화로서 인식되어야 하지 자연을 담은 공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도 옴스테드 공원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이를 용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옴스테드 공원을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모사하고 반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달라진 도시공원의 상황은 이를 요청하고 있다. 공원에서 담아야 할 프로그램의 변화, 가용한 대규모 부지의 부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원조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 시대의 적실한 공원모델을 찾기위해서는 옴스테드의 공원의 외양의 묘사보다 태도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옴스테드 공원이 가지는 영원한 가치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공원이 도시의 자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실천적인 디자인에 깔려있는 이론과 철학이 공고하다는 점이고, 셋째는 도시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불확정적인 이용을 수용하는 무테마의 공간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것들이 오늘에도 음미해야 할 옴스테드 조경의 현재적 가치인 것이다.

인용문헌

1. 배정환(2001) 동시대 조경이론과 설계의 지형(5): 변신을 꿈꾸는 공원. 환경과 조경. 통권 제 159호, pp. 82-87.
2. 배정환(2002)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본 조경설계의 새로운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29(6): 62-71.
3. 랠프 왈도 에머슨(1998) 자연. 서울: 문학과 지성사.
4. 조경진(1996) 테마파크의 역사적 연원과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수도권개발연구소 연구논총 제 22집, pp. 165-175.
5. 조경진(1998) 라빌레트공원에 관하여 알고 싶은 두 세 가지

- 것들. Locus 1: 조경과 문화. pp. 35-50.
6. 양호정(2000)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조경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최정민(1993) 옴스테드 양식이 한국현대조경 작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Balmori, D.(1993) Park Redefinitions. In D. Karasov and S. Waryan, eds., The Once and Future Park.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39-45.
 9. Beveridge, C., and P. Rocheleau.(1995) Frederick Law Olmsted: Designing the American Landscape. New York: Rizzoli.
 10. Conway, H.(1991) People's Parks: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Victorian Parks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Cranz, G.(1978) Changing Roles of Urban Parks: From Pleasure Garden to Open Space. Landscape. Vol. 22, pp. 9-18.
 13. Fabos, J., Milde, G., and M. Weinwayr.(1968) Frederick Law Olmsted, Sr.: Founder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America. Massachusett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4. Jackson, J. B.(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5. Jackson, J. B.(1991) The Past and Future Park. In S. Wrede and W. H. Adams, eds., Denatured Vision: Landscape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pp. 129-134.
 16. Kalfus, M.(1990) Frederick Law Olmsted: The Passion of a Public Artis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7. Kaufman, A.(1991) The Vision of American Urban Parks. Precip. Vol. 3, pp. 25-27.
 18. Kasson, J.(1978) Amusing the Million: Coney Island at the Turn of the Century. New York: Hill & Wang.
 20. Hall, P.(1996) Cities of Tomorrow. 임창호(역), 내일의 도시. 서울: 한울, 2000.
 22. Meyer, E.(1997) The Expanded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G. Thompson and F. R. Steiner, 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45-79.
 23. Oelschlaeger, M.(1991) The Idea of Wildern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4. Olmsted, F.(1997) The People's Park at Birkenhead, near Liverpool. In C. E. Beveridge and C. F. Hoffman, eds., The Papers of Law Olmsted: Supplementary Series Vol. 1, Writings on Public Parks, Parkways, and Park Syst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69-78.
 25. Robinson, S.(1991) Inquiry into the Picturesqu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6. Rosenzweig, R., and E. Blackmar.(1992) The Park and the People: A History of Central Park.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7. Rybczynski, W.(1999) A Clearing in the Distance: Frederick Law Olmsted and America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Scribner.
 28. Shi, D.(1985) The Simple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9. Smithson, R.(1973) Frederick Law Olmsted and the Dialectic Landscape. Art Forum February, pp. 62-68.
30. Spirn, A.(1995) Constructing Nature: The Legacy of Frederick Law Olmsted. In William Coronon, ed., Uncommon Ground: Toward Reinventing Natu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p. 96-113.
31. Sutton, S. B.(1979) Frederick Law Olmsted, 1822-1903. In S. Sutton, ed., Civilizing American Cities: A Selection of Frederick Law Olmsted's Writings on City Landscape. Cambridge: The MIT Press. pp. 1-20.
32. Wall, A.(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J.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32-249.
33. Walker P., and M. Simo(1994) Invisible Gardens: The Search for Modernism in the American Landscape. Cambridge: The MIT Press.
34. Warner, S. B. Jr.(1993) Public Park Inventions: Past and Future. In D. Karasov and S. Waryan, eds., The Once and Future Park.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7-22.
35. Zaitzevsky, C.(1982) Frederick Law Olmsted and the Boston Park System.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원 고 접 수 : 2002년 12월 16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1월 14일

3인의명 심사필